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린 로마서 8장의 8번의 메시지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삶에 도움을 주시는 가>하는 점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1) 우리안에 **내주**하시며(#2) 우리를 **인도**하시고(#3) 우리를 **정화**하시고(#4) 우리를 **증언**하시고(#5)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하시고(#6)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7)는, 성령님의 7가지 사역을 보았으며,

이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사랑으로 <최종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하다는, 바울사도의 성화론(聖化論)의 종결(終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정의 고양(高揚), 감정의 절정(絶頂)입니다. "climax" "peak"입니다.

앞에서 보아온 8:35-39절에 이르는 5구절은, 엄청난 승리(勝利)의 선언(宣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내게 큰 근심과 고통(苦痛)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苦痛)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證言)하노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세계(感情世界)를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기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참된 고통문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상 로마서에는 여러 종류의 감정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드러나 있고 어떤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감정(感情)입니다.

로마서 1:21-25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榮華)롭게도 아니하며, 감사(感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虛妄)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被造物)을 조물주(造物主)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말씀들에서, 누구의 탄식이 보입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them)로 표현된, 하나님의 피조물들, 자신들을 창조한 조물주에게 경배와 감사가 없는 자들,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대화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창조주의 절망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집나간 탕자를 붙잡지 못하고 기다리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절망감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쓰라린 안타까움을!

둘째로, 로마서에는 보통 그리스도인의 감정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경을 배우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갈등이 많은 삶입니다.

표리부동(表裏不同)하고 겉과 안이 다른 이중적(二重的) 삶을 사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으나 실천은 안 되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다른 법으로 인해서, 그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갈등의 정상에 로마서 7:24절이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은, 성령의 법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결이 됩니다. 소위 성화(聖化)의 고통으로 묘사되는 이 고통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9-22절의 매절에서 **또 하나의 소리치는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조된 만물(萬物)의 탄식이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歎息)하며 함께 고통(苦痛)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직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눈을 여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신세계의 초월적 경험이 오기를 우린 기다릴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고통, 죄인의 고통,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고통, 만물의 고통 등, 다양한 고통의 주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list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동족을 위한 고통입니다. 9:1-3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2)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苦痛)**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큰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된다면) 육체적(肉體的)으로 나타날 정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안 믿어질까 봐서 그런지. 1)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2)내 양심(良心)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證言)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良心)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증인으로까지 소환합니다. 이것으로도 양이차지않은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 나의 형제 곧 골로새의 천착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3)

이 말씀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의 두 외침을 기억하게 합니다.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8:39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은혜요 축복을 받은 자의 자랑스러운 확신이요 유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특권을 상실하는 한이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있더라도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설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최최상급의 강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 그만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한다는 것**인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본문을 따라가 보면, 한방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부분부터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9:30-32절을 읽어봅시다.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異邦人)들이 **의(義)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선교를 하였습니다. 가는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중심으로 전도행적을 이어나갔습니다. 대개 후반부는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 도망치거나 박해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드는 고민과 생각은 동족에 대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믿고 구원받는데, 내 동족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족(同族)의 구원(救援)**입니다. 10:1-3절에 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救援)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행위에 의지한 <자기 의>를 행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볼수록,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9:4-5절로 돌아 가봅시다.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적(靈的)유산(遺産)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노부가 외아들에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물려주며, 상자 하나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무가치한 종지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은행 채권서와 땅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지금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을 가진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경험과 그 응답들, 많은 조상들, 특히 족장들의 역사(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중에 핵심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민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 2천년전의 바울은, 이스라엘사람들의 영적유산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아브라함 언약 (Abrahamic Covenant) 창세기 12:1-3; 15:1-21; 17:1-14
2. 모세 언약 (Mosaic Covenant) 출애굽기 19:5-6; 24:3-8; 신명기 5:1-21
3. 다윗 언약 (Davidic Covenant) 사무엘하 7:8-16; 시편 89:3-4

4. 새 언약 (New Covenant) 예레미야 31:31-34; 누가복음 22:20; 히브리서 8:8-12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유산의 핵심인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 바울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었습니다. 저주받아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자기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3.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 적용의 질문들)

1. 본문은 우리에게 <골육과 친척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 묻습니다.

누가16장에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어 음부에 갔고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던 나사로라 이름 하는 한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원합니다. 1)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눅16:19-28)

* 이 부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이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혼의 구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이 성장해나가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게 정상(定常)입니다.

디모데전서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일가친척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골친(골육과 친척)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2. 두 번째 적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니까? 위에서 말한, 한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은 모두 거절이 됩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부자에게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자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는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눅16:25-26)

둘째 소원은 나사로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16:31)” 는 것입니다.

다시 9: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처제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에 받겠습니다” 큰 슬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축복을 포기할 만큼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만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3. 바울은 희망을 어디서 발견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질문입니다.

바울은 희망을 어디서 발견하였을까요?

우리는 9-11장에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11장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론(攝理論) 영어로는 doctrine of divine providence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섭리(歷史攝理), 인류운영계획 안에서 바울은 이 문제의 답을 얻습니다.

미리 맛을 보자면 결국 바울은 1)하나님에게서 2) 이미주신 구약의 말씀안에서. 3)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바입니다.

민족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을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요즘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 제조업 경쟁력, 세계 1,2위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의 존재.

K-팝, K-드라마, K-food 등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6위권 방산강국으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영(靈)적인 민족이라는 점입니다.

인구의 30%가까운 기독교인비율과 일본의 0.7%를 비교해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민족(宣敎民族)으로 삼으신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구한 말(조선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민족에게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만일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의 일본(日本)과 같았을 것입니다. 한국민족이 일제 36년과 6.25를 겪은 것은, 민족적인 아픔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보면 기독교신앙이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독립운동과 말세신앙, 새벽기도운동 등으로 한국의 복음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의 부흥은, 아시아에서 선도적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기독교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동방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표현은 인도 출신 **노벨문학상 시인 타고르**가 192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쓴 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타고르는 한국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라고 칭하며, 한때 아시아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서 밝은 빛을 발했던 한국이 다시 그 빛을 되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면성과 끈기, 책임감과 성실함. 빠른 적응력과 변화 수용 등은 한국인의 장점이지만,

이 변화 많은 시대에서 ugly korean의 모습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극심한 분열과 세대 갈등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보수·진보 진영 간에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협치 부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체와 구조적 불균형으로 청년실업률은 상승하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거기에 출생률 0.65명 이하,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본격적인 인구 절벽 단계 진입합니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희화화" 또는 풍자한 두 가지 사례가 있죠.

1) 조선 시대 남성들이 착용한 전통 모자 "갓"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본 조선시대는 사대부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갓'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양사람의 귀에 마치 하나님(God)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민족으로 들렸다는 것.

"갓을 머리에 쓴 민족"이라는 비유는 한국인의 전통적 예의범절과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설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어떤 글을 보니, 한민족역사정책연구소-‘갓과 상투의 어원’(<https://cafe.daum.net/kphpi21/WMwx/2699>) 상투라는 말도 saint 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네요. <거룩한 상투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라니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2) 또 하나는 ‘조선(朝鮮)’이라는 말의 동의어로서 ‘chosen’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남북한 민족을 마지막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저는 우리민족을 풍자(諷刺)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선교의 도구로 우리민족을 세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국적 장기 해외선교사는 약 21,621명으로, 전 세계 171개국에 파송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단체가 파송한 타국적 선교사는 약 986명이 활동 중입니다.

미주 한인교회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인 해외선교사 숫자는 약 2,738명(1,730가정)이 120여 개국에 파송되어 있어, 미주 한인사회의 선교력도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2025년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활발하게 해외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와 사역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맺음: 지금의 시대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와 현실에서 하나님은 없고, 돈이 우상이고 명예와 힘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산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에게는 공산주의보다 가까워도, 지금의 자본주의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시대를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말의 세상은 안전이나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순간까지 내 동족(同族)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미국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골친을 위해 동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에서 배웁시다.

우리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부끄럽게도 바울의 열정과 신앙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이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우리도 보고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